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사회계열) 입학시험 문제

지원 전형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좌 석 번호	
----------	--	----------	--	----------	--	--------	--	--------------	--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도 그리스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에는 이미 일찍부터 신앙과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다양한 고통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엠펬도클레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이전의 오르페우스교의 열광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자 했다. 앞의 두 사람은 진정으로 종교 창시자의 영혼과 재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종파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한 민족 전체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종파들만이 머리를 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민족이 이미 자체 내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친 무리 본능이나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동요 상태를 사람들은 흔히 윤리의 타락이나 부패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알이 성숙하여 껍질이 깨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북유럽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북유럽이 남유럽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상당 부분 같은 유형과 같은 색깔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은, 만족되고 관찰되어야 할 반대의 요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꾸로 힘과 지배욕이 매우 강한 천성을 지닌 인물이 단지 종파에 국한된 미약한 결과를 낳는 데 그치는 경우, 이로부터 그 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인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시문 (나)

예술에서는 발전 대신에 항상 독창이란 것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 독창이란 것은 자기 완결적인 것을 의미한다. 각개의 예술의 세계는 제각기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서 혼자서 완결되는 세계다. 그러면 고전과 고전과의 사이에 절단을 이어가는 것, 즉 예술의 역사의 비연속의 연속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결작 아닌 것, 즉 범작이나 졸작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갈 필요에 직면한다. 예술사에 있어서 결작 아닌 것은 예술적인 전승의 수단이 된다. 예술에 있어서 전승은 결작 아닌 것을 통하여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아류(亞流)라는 현상에서 들 수 있다. 아류란 결작의 모방이다. 모방은 흔히 결작을 모독하고 그것을 개악(改惡)한다. 그러면 아류란 결작의 파괴지 그 전승이 되느냐고 할지 모르나, 전승이란 이러한 모독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람은 아류에 전승된 결작에 대하여 분명히 그 모독을 책(責)한다. 그러나 아류에 대한 이 비난 속에는 결작에 작(作)한 존경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하게도 모독을 통하여 그것의 존경에 도달하는 것은 종교에서 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배신자가 신을 모독했다고 신을 경멸하지는 않는 것을 잘 안다. 모독을 죄악이라고 느끼는 심리 속에는 항상 신에 대한 신성한 숭앙이 들어있는 법이다. 이 숭앙에 의하여 종교에서 사람들이 다시 신에게로 일보 접근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역시 결작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결작 아닌 것은 결작과 결작과를 매개한 것이다.

제시문 (다)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해 명상할 때,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다시 지우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그는 마침내 문제의 해결책을 붙잡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는 희미한 빛에서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래된 호기심이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던 어떤 거대한 개념을 한 사회가 정교하게 만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이 그러한 호기심, 예컨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이전에 말이다. 아니면 한 사회가 야심적으로 꿈꿔온 거대한 정복을 구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 내의 인간 활동이 그 야망, 예컨대 증기를 이용한 생산기계, 운송수단, 항해수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말이다. 우선 사람들에게 제기된 문제가 온갖 모순적인 창안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진다. 그러다가 어떤 명료한 해석틀이나 편리한 기계가 등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든다. 이후로는 그것이 고정적인 기반으로 이용되면서 그 위에서 궁극적인 발전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보는 일종의 집단적인 성찰이다. 거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뇌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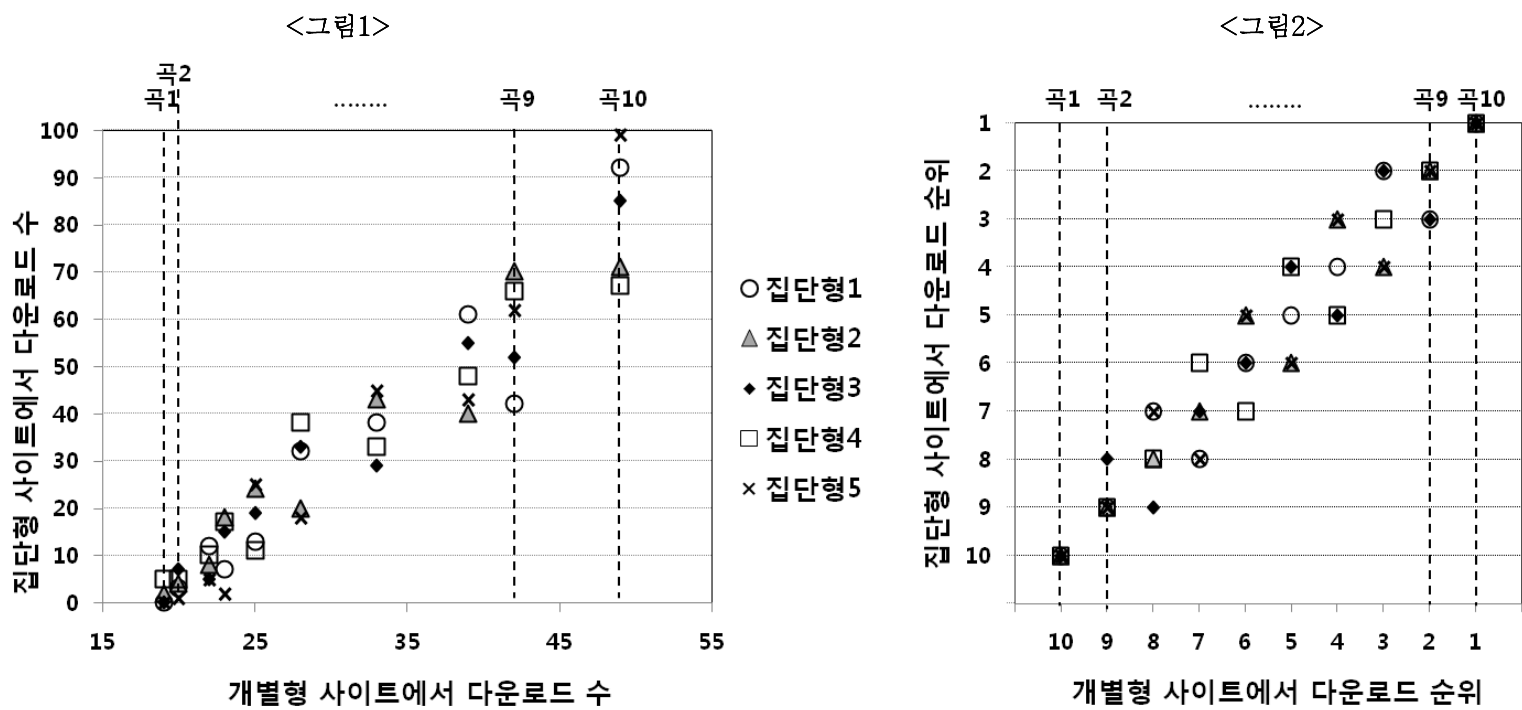
그것은 오히려 창안자들의 무수한 뇌 사이에서 모방 덕분에 생겨나는 연대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은 문자로 고정되어 거리나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억의 바탕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개인의 뇌 속에서 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진보는 개인적 진보와 같이 두 가지 절차, 즉 대체와 축적을 통해 일어난다. 발견이나 창안 가운데 어떤 것들은 대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축적 가능하다. 그로부터 논리적인 투쟁과 논리적인 결합이 생겨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채택하고자 하며, 그것으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제시문 (라)

대중음악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장르가 있다. 이 장르의 미공개 신곡(新曲)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실험을 마련했다. 일반인 신청자들 가운데 모두 6백명의 실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신곡 10개를 듣고 자신이 선호하는 곡을 3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6개의 온라인 사이트에 무작위로 1백 명씩 배치되었다. 사이트는 크게 '개별형'과 '집단형'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사이트 유형	사이트 수	특징
개별형	1개	- 무작위로 화면에 배열된 10개 곡을 들은 후 3개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의 다운로드 횟수를 알 수 없음
집단형	5개	- 무작위로 화면에 배열된 10개 곡을 들은 후 3개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음 - 화면에 배열된 각 곡의 옆에는 사이트 내 다른 참여자들이 그 시점까지 다운로드한 횟수가 표시됨 - 참여자는 자기 사이트 내에서 각 곡에 대해 간단한 평을 달거나 다른 참여자들의 평을 읽을 수 있음

두 유형의 사이트 모두에서 곡을 들을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으며, 6개 사이트들 간의 의사소통은 차단하였다. 실험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그림1>, <그림2>와 같다. 집단형 사이트가 모두 5개 있으므로, 개별형 사이트에 해당하는 가로축의 한 값에 대해 5개의 집단형 사이트의 값들이 세로축으로 늘어지게 된다.



<그림1>을 보면, 개별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곡일수록 5개 점들 간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곡10의 경우, 개별형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 횟수가 49회였는데, 집단형5 사이트에서는 99회, 집단형2 사이트에서는 71회 등을 기록했다. 반면 개별형에서 19회를 기록한 곡1의 경우, 집단형 사이트들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는 모두 10회 미만이었다. 한편 <그림2>를 보면, 개별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중위권일 때보다 최상위와 최하위일 때 5개 점들이 서로 더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의 곡1이나 곡10의 ■는 5개 점들이 한 곳에 겹쳐있음을 나타낸다.

<문제 1>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개별형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곡을 다운로드한 횟수가 미공개 신곡들의 질을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

지원 전형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좌 석 번호	
----------	--	----------	--	----------	--	--------	--	--------------	--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활력을 임의로 이곳저곳에 소모하려는 정신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발현 방식 역시 세상이 진보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표출되는가’를 간략히 설명해 본다면, 보통 ‘도락(道樂)’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락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다든가 당구를 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총을 메고 사냥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나아가서 어떤 강요 없이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이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또 철학도 되므로, 언뜻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모두 도락의 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차나 전화 등이 설비되어 있다고 해도 “꼭 오늘은 저쪽까지 걸어서 가고 싶다.”는 식의 도락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일 년에 두세 번은 있습니다. 원해서 육체를 사용하고 피로를 청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산보라는 사치도 요컨대 이 활력 소모의 부류에 속하는 적극적인 생활을 위한 생명 보존 형태의 일부분입니다.

도덕가라면 이 도락 근성의 발전을 꾀함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도덕상의 일일 뿐 사실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활력을 소비하는 이 궁리 정신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활동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의무적 행동을 하는 인간도 내버려두면 자아본위(自我本位)에 입각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극에 정신이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갖고 이를 벽돌쌓기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그는 벽돌공의 동작들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분석과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길브레스는 벽, 반죽통, 벽돌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 발이 각각 디더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는 반죽통과 벽돌의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를 고안해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놓을 탁자를 둠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반죽을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화차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의 반죽통 가까이에 쌓도록 했다. 이로써 벽돌공은 비계 위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벽돌을 질 수 있게 되었고 벽돌을 뒤집거나 양 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의 낭비가 줄었다.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이 반죽 위에 벽돌을 놓고 접합부의 두께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흙손의 손잡이 끝으로 벽돌을 몇 차례 두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후 그는 반죽의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벽돌을 누르는 손의 압력으로 접합부의 적당한 두께를 손쉽게 유지하는 법을 고안했다.

* 비계: 건설현장에서 쓰는 가설 발판

제시문 (다)

기억에 망각이 특이하게 혼합되는 것은 우리 정신에 있는 선택 작용의 한 예이다. 선택은 그 위에 정신이란 배를 건조할 뼈대가 된다. 그리고 기억을 위해 선택이 쓸모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이 없다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간을 회상하려 할 때 그것이 지속된 원래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결코 사고를 앞으로 진전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회상된 시간들은 원근 단축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이 원근 단축은 그 시간들을 채웠던 수많은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원근 단축이라는 축약 과정은 이와 같은 결손을 전제로 한다. 먼 옛날의 일을 떠올리기 위해 그 일과 현재의 우리 사이에 놓인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면, 그 조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억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 이루어지는 조건의 하나가 망각하는 것이라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완전히 망각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망각은 기억의 질병이 아니라 기억을 건강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망각 과정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변칙적인 것들이 있다. 어느 날 망각되었던 것이 다음 날에는 기억날 수도 있다. 우리가 상기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것이, 우리가 그 시도를 포기하자마자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스레 정신 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올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들이 여러 해 동안 철저히 망각된 다음에도, 어떤 대뇌 질환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잠복된 연상 통로가 개방되어 재생되는 일도 가끔 있다. 마치 사진사의 약물이 콜로디온 필름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림을 현상해 내듯이 말이다.

제시문 (라)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진은 피실험자들에게 한 번에 하나씩 총 8장의 컬러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이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식별하도록 했다. 실험진은 각각의 사진을 초점이 희미한 상태에서 스크린을 통해 피실험자들에게 공개했고 연속적으로 점차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작했다. 한편 실험진은 사진을 피실험자들에게 최초로 보여줄 때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공개 시간의 길이를 다양하게 설정했다.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공개 시간은 122초, 35초, 13초의 3단계로 구분했다.

이 실험에는 정상적인 (교정)시력을 갖고 있는 총 90명의 대학생들이 피실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10명씩 9개 집단에 배정되었다. 이들 중 첫 번째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상’인 상태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또 다른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중’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역시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마지막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하’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의 차이, 그리고 공개 시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놓은 수준까지 선명도가 높아지면 사진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프로젝터를 조작했다. 사진이 꺼질 때 각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미리 준비된 별도의 용지에 바로 기록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 (단위: %)

공개 시간(초)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			평균
	상	중	하	
122	25.3	50.7	72.9	49.6
35	25.2	44.4	63.8	44.5
13	19.4	39.1	42.7	33.7
평균	23.3	44.7	59.8	-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사회계열) 입학시험 문제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가-1.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는 “자기를 속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은 없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쉽게 믿어버리고 만다”고 말했다. 몇 가지 조사에 따르면 ‘자존감’뿐 아니라 ‘행복’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 지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현실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바보의 낙원’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월하게 보일 비교 기준을 선택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견을 견지한다는 증거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의 미래를 ‘장밋빛 안경’을 통해 바라본다.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갖는 것이 정확하고 유효한 자기 평가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정신 건강에 더 좋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 환상’이라고 한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평가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신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한다. 긍정적 환상이 더 나은 육체적 건강, 그리고 역경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 방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긍정적 환상을 더 자주 품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

가-2.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성향이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자기 신념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적·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인생의 작은 사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잔에 물이 반 밖에 안 남았다고 보지 말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보라”거나 “떡구름 뒤의 태양을 보라”는 식으로 격려한다. 그러나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이므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암이나 심장 질환이 발병하거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사회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형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근거 없는 안전감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나) “운명은 바야흐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자, 산초여, 저쪽을 보아라. 서른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다. 나는 저놈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일약 거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전투! 이 지구상에 널려 있는 악의 씨를 없애는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이다.”

“아니 거인들이 어디 있어요?” 하고 산초가 물었다.

“아, 저쪽에 긴 팔을 가진 놈들 말이다. 어떤 놈들은 팔 길이가 거의 20리에 걸쳐 뻗쳐 있구나.”

“나리, 저 거인처럼 보이는 것들은 말입쥬, 실상은 풍차들이에요. 그리고 저 팔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여서 맷돌을 돌리는 날개입쥬.”

“정말 너는 모험이라는 것을 통 겪어보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저놈들은 틀림 없는 거인들이야. 겁이 나거든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저놈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너는 여기에서 물러나 기도나 하며 옆드려 있으란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돈 키호테는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했다. 지금 공격하려는 것은 거인들이 아니고 풍차라고 악을 쓰는 산초의 말을 아예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이 거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산초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도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비겁하고 형편없는 놈들아, 여기 기사 한 명이 너희들과 맞서려고 하니, 아예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이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풍차 날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 키호테는 이것을 보자 다시 소리를 질렀다.

“네 놈들은 부리아레오보다 더 많은 팔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호되게 당하리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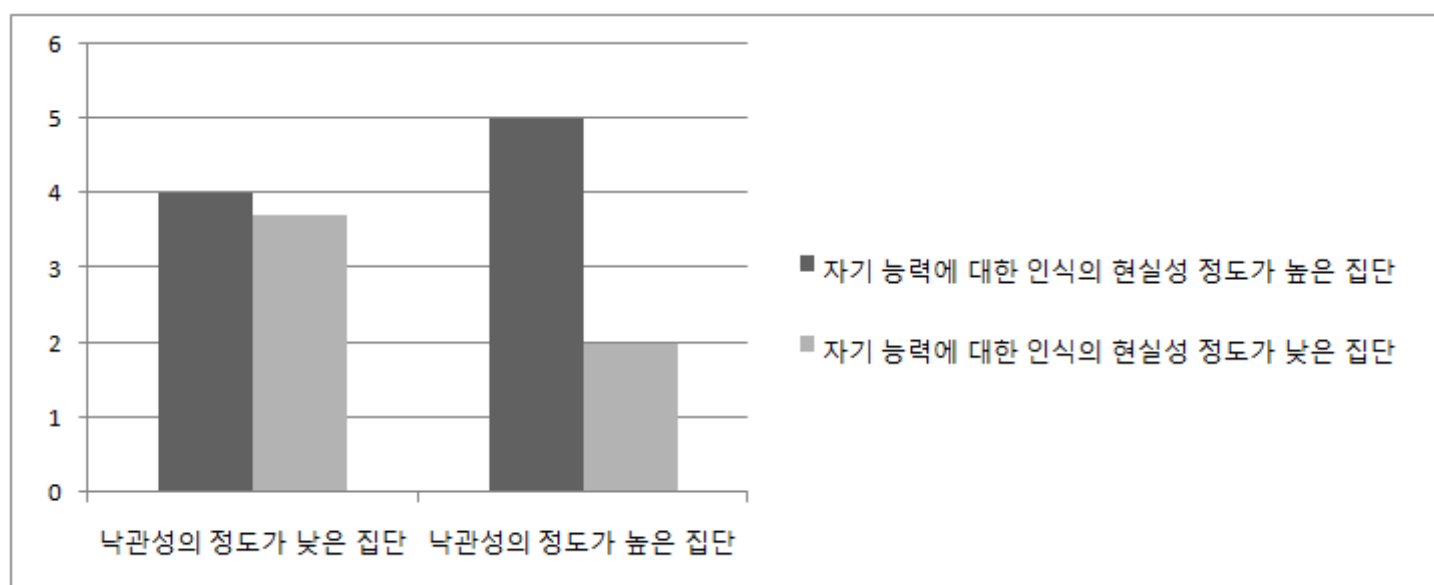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사모하는 돌시네아님에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창은 가슴받이에 달린 철고리에 꽂은 채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하면서 맨 앞에 있는 풍차로 덤벼 들었다. 창으로 날개를 치니 세찬 바람이 일어나 날개를 돌리는 통에 창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말과 기수는 공중으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져 들판을 때굴때굴 굴렀다. 산초가 당나귀를 전속력으로 몰아 주인을 구하려고 달려가 보니 돈 키호테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다) 옛적에 한 여자 있되 일신이 갖은 병신이라 나이 사십이 넘도록 출가하지 못하여 그저 처녀로 있으니 옥빈홍안이 절로 늙어가고 설분화용이 공연히 없어지니 설움이 골수에 맺히고 분함이 심중에 가득하여 미칠 듯 취할 듯 좌불안석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중략)

내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같이 못할소냐 / 내 얼굴 엷다 마소 엷은 구멍 슬기 들고 / 내 얼굴 검다 마소 분칠하면 아니 될까 / 한 편 눈이 멀었으나 한 편 눈은 밝아있네 / 바늘 귀를 능히 꿰며 버선볼을 못 박으며 / 귀 먹다 나무라나 크게 하면 알아듣고 천둥 소리 능히 듣네 /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 하여 무엇 할고 / 한 편 다리 병신이나 뒷간 출입 능히 하고 / 콧구멍이 맥맥하나 냄새는 쉽게 맡네 / 입술이 푸르기는 연지 빛을 발라보세 / 엉덩 뼈가 너르기는 해산 잘할 본보기요 / 가슴이 뒤 앞기는 진일 잘 할 기골일세 / 내 얼굴 볼작시면 비록 곱진 아니하나 / 일등 수모* 불려다가 현사롭게 단장하면 / 남이라고 맞은 서방 난들 설마 못 맞을까 /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할손가 / 부모 동생 믿다가는 서방맞기 지난하다 /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면 / 중매파를 불려다가 힘을 써서 청혼하면 어찌 아니 못할손가 / 이처럼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 신령님도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 김도령과 의혼하니 첫 마디에 되는구나 / 혼인택일 가까우니 엉덩춤이 절로 난다

*수모: 혼례 때 신부의 단장을 도와주는 여성

(라)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낙관성’과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나누어 시험성적을 분석하였다. 다음 도표는 집단별 시험성적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성적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것으로 해석한다.



<문제 1>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1)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강녕의 용반, 소주의 등위, 항주의 서계는 모두 매화 산지이다.

어떤 이는 “매화는 휘어져야 아름답고 곧으면 맵시가 없으며, 틀어져야 아름답고 똑바르면 볼품이 없으며, 성기어야 아름답고 뻑뻑하면 자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하지만 문인화가들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천하의 매화를 평가한다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곧은 것을 베고 뻑뻑한 것을 쳐내고 똑바른 것을 잘라 매화를 병들게 하고 매화를 빨리 죽게 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돈을 벌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화를 틀어지게 하고 성기게 하고 휘어지게 하는 것은 돈 벌기에 급급한 우둔한 사람들이 그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신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괴벽한 취미를 매화 파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똑바른 것을 베어 곁가지를 키우고 뻑뻑한 것을 쳐내 어린 가지를 죽이고 곧은 것을 잘라 생기를 막음으로써 높은 값을 구하게 하니, 강(江: 장쑤성)과 절(浙: 저장성) 지방의 매화는 모두 병이 들었다. 문인화가들이 끼친 폐해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이야!

나는 300개의 매화 분재를 샀는데 모두 병들었고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3일 동안 울고 나서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뜨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여맨 끈을 풀어주었다. 5년을 기약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제시문 (나)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 온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건물임이 틀림없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추어 갖출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쓰다듬어 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싶어진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알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주고 부처님의 믿음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이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당간지주가 서 있는 절 밖,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닦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 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마도 먼 안산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 낀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제시문 (다)

르네상스 시대 궁정의 여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아함’이 요구되었다.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은 ‘꾸민 듯함’이다. ‘꾸민 듯함(아페타티오네)’은 ‘아무런 티도 안 냄(스프레짜투라)’과 대비된다. ‘우아함’을 훌륭하게 연출하는 최대의 요령은 이 ‘아무런 티도 안 냄’에 있다.

‘우아함’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런 티도 안 냄’이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다. ‘아무런 티도 안 냄’이란 ‘기교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마치 아무런 노력이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아함’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타인이자 동료인 궁정인들의 시선을 과도할 정도로까지 의식하고 계산한 끝에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표면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주체가 연기하는 ‘아무런 티도 안 냄’이라는 ‘태도(마니에라)’의 이상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움이란 인위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패러독스에 ‘아무런 티도 안 냄’의 본질이 있다.

특히 여성은 그 태도나 몸가짐에서 가능한 한 ‘아무런 티도 안 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즉 섬세하게 갈고 닦은 정신을 지니면서도 늘 아무런 궁리나 노력도 하지 않은 듯이 보여야 하는 것이다. 줄리아노의 말처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욱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교묘하게 이 패러독스를 연기해야 한다.

제시문 (라)



다이아몬드 원석



물방울 다이아몬드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사회계열) 입학시험 문제지

모집구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개인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선택 원칙을 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공평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의 관점이 필요하다.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춘 이상적 존재로서 공평한 관망자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경험하고 동일화할 수 있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다. 그는 사회 속의 다양한 욕구들의 강도를 확인하고 하나의 욕구체계 속에서 각각의 개인이 가져야 할 응분의 비중을 할당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 체제의 규칙들이 조정되며 그 욕구체계의 만족이 극대화된다. 그 결과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규칙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욕구 충족의 희소한 수단들이 배분된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장해서 얻은 성과이며, 또한 공평한 관망자가 가진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이러한 확장이 제대로 보장된 결과이다.

제시문 (나)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단체나 저 단체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우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주어진 조건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시문 (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나 다른 입장을 헤아릴 능력이 적어서 무한한 이기심을 보인다. 이렇게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즉 이기심은 개인적으로는 온건하게 나타나지만 집단적으로는 보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시문 (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의’(友誼 *philia*)는 정치적 결속과 윤리적 결속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시민적 우의는 선에 관한 공유된 개념을 가지고 그 선으로 인하여 폴리스의 자유 시민이 되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정치는 친구들 사이의 일이며 정치 공동체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이익에 관해 합의하고,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며, 공동의 의지를 구현하는’ 장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은 달성될 수 없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부정의하고 탐욕스런 사람들은 공동선이나 타인과의 협력에 무관심하지만 덕스러운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할수록 불의에 더욱 엄격해진다. 진정한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다고 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의라는 덕은 스스로의 부도덕은 물론 친구의 부도덕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1>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네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문제 2>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네 제시문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지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자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검사: 피고인의 본명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로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제가 본 피고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검사: 그렇다면 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까?

아이히만: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검사: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아이히만: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

포스터 속에 들어 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결눈질을 한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 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習性)도 웬만치는 변한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을 뿐이다.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
 마셔 볼 공기(空氣)가 없다.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 보지만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 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불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複寫) 속에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 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제시문 (다)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뤼카온은 아킬레우스에게 사로잡힌 뒤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에게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한다.)

“자. 친구여, 그대도 죽을지어다. 왜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가?
그대보다 훨씬 훌륭한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나 또한 얼마나 잘 생기고 큰지?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는 여신이시다.
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
누군가가 창이나 또는 시위를 떠난 화살로
나를 맞혀 싸움터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낮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뤼카온은 무릎과 심장이 풀어져
잡았던 창을 놓고 두 팔을 벌리며 주저앉았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날카로운 칼을 빼어
목 옆 쇠골을 내리쳤다.
……[중략]……
검은 피가 흘러내려 대지를 적셨다.

*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트로이아의 영웅인 헥토르에게 살해당했다.

제시문 (라)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에버렛 워딩턴은 1955년 어느 날 어머니가 무단 침입한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용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인 워딩턴이었으나 그는 사건 현장을 보고 몸서리를 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소리쳤다. 그는 분노 속에서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폭력적 본성과 죄성(罪性)을 깨달았다. “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워딩턴 교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살의를 품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딱한 아이들도 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후 그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깊은 고뇌와 연구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교육과 연구, 저술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세를 갖도록 돕고 있다.

〈문제 1〉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 ‘공감’ (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문제 2〉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듭 나무라셔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이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害鳥)는 으레 참새만 낀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용모는 아무것도 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슬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쳐 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갸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이겁니까?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유,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物格)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동물-아니 그제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하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이론을 통해 해부학적, 행동적, 그리고 사고와 의식, 감정을 포함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물들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어렵듯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과 현격하게 달라 보이는 종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급진적 의견이 아니다. 만일 인간이 특정한 기술 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른 동물들 역시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지성과 지각 능력, 감정, 그리고 윤리의식이 어디에서 기원하겠는가? 종들의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침팬지가 조이스틱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미로찾기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것 봐, 침팬지가 새보다 영리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가 침팬지보다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 봐, 새가 침팬지보다 영리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제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특정 종의 개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연속값으로서의 지능을 언급하는 대신, 우리는 광범위한 친족 관계상에서 우리와 가깝거나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우리와 관계가 멀거나 덜 비슷하게 생긴 종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種)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실제로는 인간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들의 고통에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귀를 닫는 것이다.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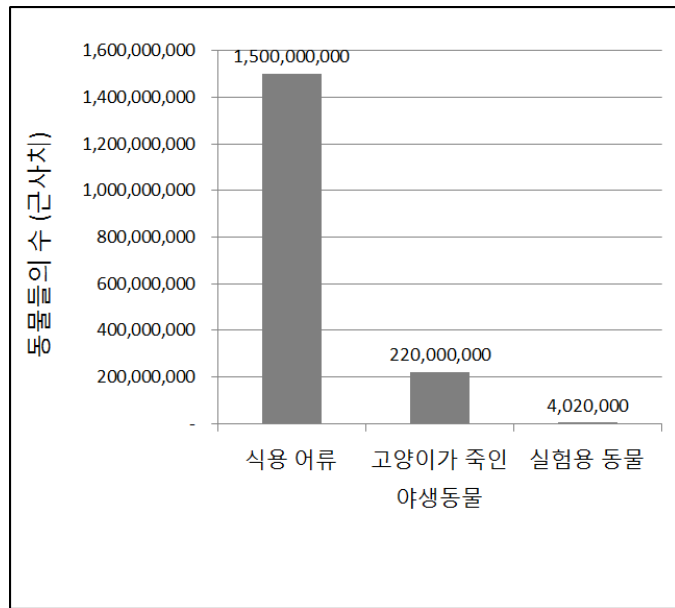
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그 목적은 인간이다. 우리는 “왜 동물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류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다. 동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만일 개가 그의 주인에게 오랫동안 충실하게 봉사한다면, 그의 봉사는 인간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개가 더 이상 봉사가 어려울 정도로 늙어버리더라도, 그 주인은 개가 죽을 때까지 개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러한 행동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의 어떤 행동이든 인간 행동과 유사하고 동일한 원리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에 대한 상응하는 의무를 함양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가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썩 죽인다면, 그의 행동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그가 인류에 대해 보여주어야 하는 자신의 인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구태여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한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도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관찰 목적으로 아주 작은 곤충을 이용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뭇잎 위에 다시 되돌려놓았다.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생명체를 파괴한다면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말없는 동물들에 대한 자애로운 감정은 인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킨다.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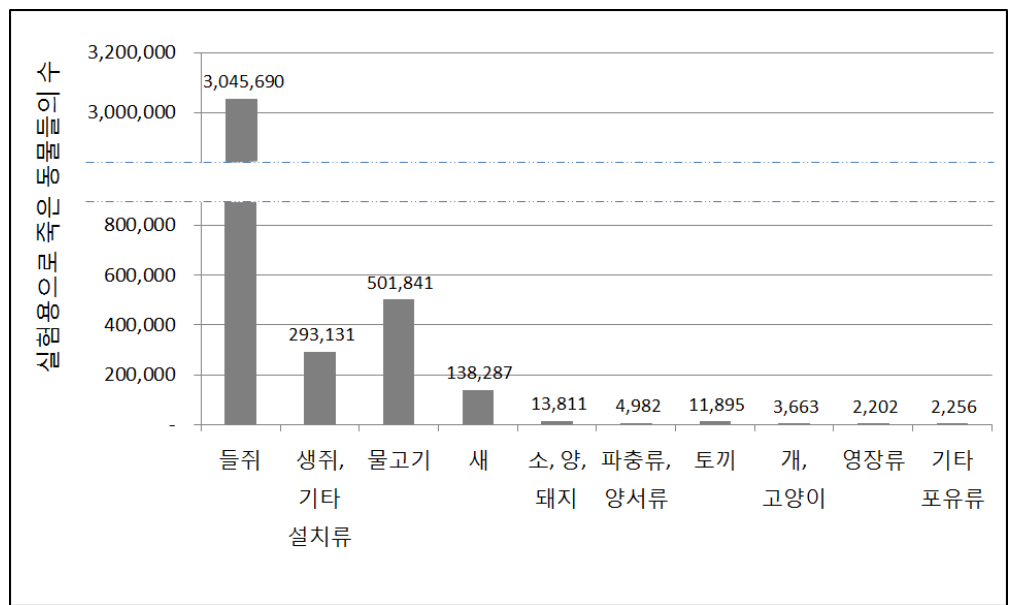
[도표 1]

동물들의 사인(死因) 비교



[도표 2]

실험용으로 죽은 동물들의 종류



[도표 3]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법의 활용 정도 (근사치)

인공심장 판막 이식 횟수	4,000건
유방암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수	35,000명
인슐린을 투여받는 새로운 당뇨병 환자의 수	100,000명
전신 혹은 부분 마취 수술 횟수	3,000,000건
천식 치료제 처방 횟수	30,000,000건
항생제 처방 횟수	50,000,000건

※ 2013년 영국의 연간 통계

<문제 1>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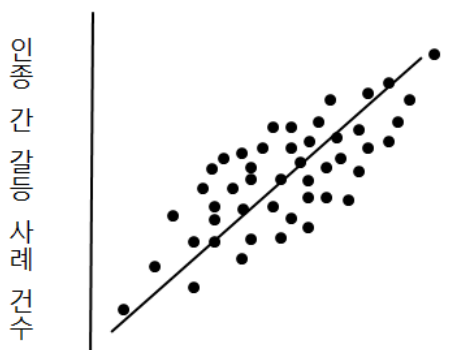
제시문 (가)

다음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행된 한 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두 화가(클레,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여준 후 어느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피험자들을 두 집단 X(클레를 좋아하는 집단)와 W(칸딘스키를 좋아하는 집단)로 나누었다. 실험 상황에서 피험자는 실험자가 무작위로 뽑아 제시한 다른 두 명의 피험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배분해야 했다.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A)은 X집단에 속해 있고, 다른 사람(B)은 W집단에 속해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험자는 15점의 점수를 A와 B에게 배분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A와 B는 각각 9점과 6점을 받을 수도 있고 5점과 10점을 받을 수도 있었다. 피험자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도 없었다. 또한 피험자들은 각자 다른 누군가에게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는 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자신과는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제시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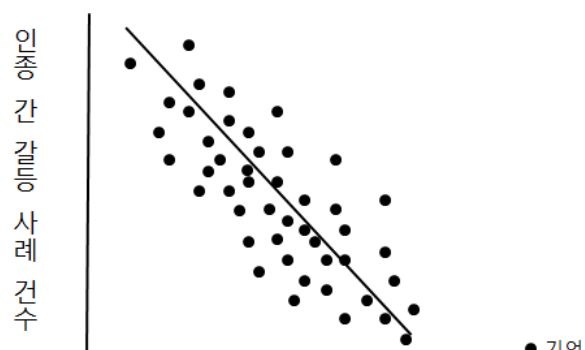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기업에서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연구자가 다양한 인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와 조직 내 인종 갈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기업별 인종 간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인종 간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사례 건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연구자가 분석한 것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화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조직 내 인종 갈등 발생 건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의 X축은 기업별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다. 도표의 Y축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각 기업별 인종 갈등 관련 사건의 발생 건수다.

[그림1]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

[그림2]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

제시문 (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얻는 것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연민이나 동정이 이런 종류의 원리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목격하고 슬픔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은 굳이 예를 들어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 무도한 악당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는 없다. 단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느낄지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내 형제가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이 안락한 상황에 있는 한, 나의 감각은 그 형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전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 자신을 넘어선 적이 없고, 또 넘어설 수도 없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상상력조차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재현할 뿐이다. 우리 상상력이 묘사하는 것은 타인이 감각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감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아보고, 타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며 어느 정도는 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고통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는 일은 매우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고통 받는 자와 처지를 바꾸어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타인의 비참함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은 여러 분명한 관찰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동정이나 연민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반면,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지칭하는 용어다.

제시문 (라)

프랑스인 노동자 르블롱 씨 부부가 사는 종키 거리 주변에는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르블롱 씨는 자신이 알제리인들을 존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들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천정을 올려다 보는 르블롱 씨 부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녀는 주로 이웃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는데, 이 때문에 이웃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름 휴가철에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나는 냄새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간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신념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죄의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기도 했다. 르블롱 씨는 전체 학생 가운데 이민자 자녀인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역 내 학교의 교사들이 이들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르블롱 씨가 지켜온 전통과 신념은 이민자와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인터뷰 중 알제리인 동료들에 대해 유보적 판단(“알제리인 동료 중 한 사람은 대단해요. 아랍인 치고는 대단한 사람이에요.”)을 드러내고 라마단* 동안 알제리인 동료들이 받은 특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의 발언이 이와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그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때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은 프랑스 사회의 교육 전통과 사회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여러 정치적 참여 활동을 통해 강화된 것이었다.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인답게 관용의 가치, 아니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해의 가치(그는 몇 번이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라고 말했다.)를 실천하기 위해 르블롱 씨가 노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아마도 인터뷰 상황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라마단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하는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맘소사……. 음, 정말 끔찍했죠. 왜냐하면, 음, 나는 끔찍했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어른들은 낮에 잡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애들은……. 사내놈들은 길에 나와 놀죠. 그 녀석들은 소리를 질러대지요. 그 녀석들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밤 10시쯤 떠들썩해지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그 때부터 진짜 소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성스러운 기간.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섭취, 흡연, 음주, 성행위 따위를 금한다.

<문제 1>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6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그렇게 힘 있게 만든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에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즉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정직함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옹당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진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무엇보다 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그러하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수 있으리니.

제시문 (나)

우리는 내면적 자아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는 남에게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의 정신이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느낌, 지각, 행동의 차이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만든 즉각적인 인상들을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러한 차이들을 바로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인상과 외양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삼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즉각적인 인상들을 바로 우리의 인간됨으로 여긴다.

인간됨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 그 자체이다. 게다가 사람의 외양이 변화하면 그 사람 자체도 변한다.

외양은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인간됨은 외양에 내재해 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베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알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동과 같이 세세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외양은 내면적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자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외양은 오히려 사적인 느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자아는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난 외양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다.

제시문 (다)

양처보(陽處父)*가 위(衛)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읍(甯邑)을 지나다가 영씨(嬴氏)의 집에 묵게 되었다. 영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내 오래도록 근자다운 이를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려!”

그리고 양처보가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섰다.

영씨는 양처보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온산(溫山)까지 가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아내가 물었다.

* 양처보(陽處父)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관리이며, ‘父’는 이름에서 ‘보’로 읽는다.

“찾던 사람을 찾았다 하시더니, 그를 따라가지 않으시다니. 집이 그리도 그리우셨나요?”

그러자 영씨가 대답했다.

“내가 그의 걸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하였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싫어하게 되었소. 걸모습이란 마음이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말이라는 건 그 걸모습의 기틀이오.

마음이 그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라면, 말은 자신의 무늬라고 할 수 있소. 말의 무늬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마음과 말과 걸모습이 잘 부합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들이 괴리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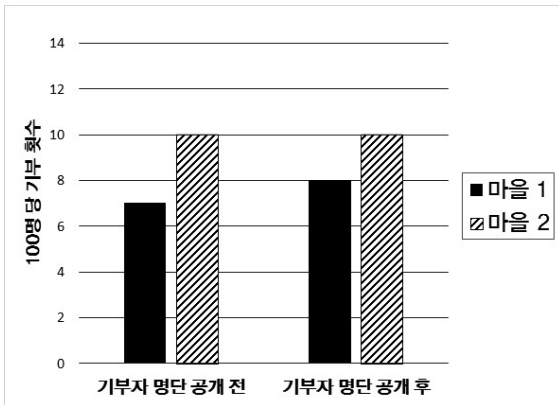
양처보의 걸모습은 아주 번듯한데, 그의 말은 들떠 있으니 이는 진정한 그가 아닌 것이오. 내면이 부족한데도 겉으로는 강한 척 한다면, 이는 그 마음을 거스르고, 결국 그 마음도 바뀌고 말게 되오. 또 내면과 걸모습이 같더라도, 말이 그것을 거스른다면 그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것이오. 무릇 말로써 그 믿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을 중시하기를 기를 잡고 있듯이 해야 하며, 오래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야 하는 것이니 어찌 경시할 수 있겠소! 이제 양처보의 마음이 어떤지 훤히 알겠소. 걸모습을 꾸며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고집스런 성격에다 재주만을 중시하며, 근본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욕모이는 그런 자는 못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자요. 그를 따라 다니면 이로운 것 없이, 그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떠난 것이오.”

1년 뒤 나라 안에 난이 일어났는데, 양처보는 결국 그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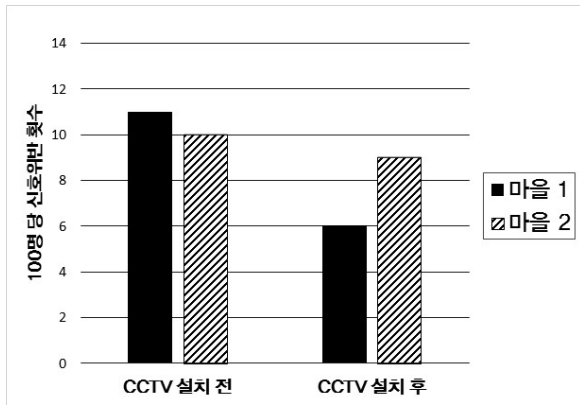
제시문 (라)

다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간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실험결과이다. 인구수와 기타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두 마을(마을 1, 마을 2)을 선정하였다. 특정일부터 각 마을의 기부자 명단을 해당 마을신문에 공개하였고, 도로에는 두 마을 모두 CCTV를 설치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이후 3개월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



<그림 2>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6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운이 열한 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엘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운을 보고 허 노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세 상에는 즐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흔찮을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각목이었다. 발바닥 절반만 한 넓이의 각목을 땅에 깔아 놓고 손을 뒤로 모아 잡은 다음 몸을 꼳꼳이 하여 그 위를 왕래하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는 빨리, 그랬다가는 다시 천천히, 그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었을 때 운은 눈을 싸매고 그때까지의 과정을 한 번 더 되풀이했다. 다음에는 그 각목이 줄로 바뀌고, 그 줄이 드디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꼬 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운은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이미 그는 언뜻 보기에 허 노인과 닮았듯이 줄을 탔다.

그러나 허 노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 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안 보였다. 하지만 운은 그 허 노인에게 선불리 이야기를 꺼 낼 수 없었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뱉다. “아버지,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운은 까닭을 물렸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어머냐,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 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 이냐?”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흠, 아직도 객기가 있어…….”

허 노인은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 운은 또 아무 대꾸도 못 하고 줄로 올라갔다.

제시문 (나)

뉴턴이 자연철학의 원리에 관한 그의 불후의 저작 속에서 논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아무리 위대한 두뇌가 필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예술을 위한 모든 규칙이 아무리 상세하고 또 그 모범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 재기발랄한 시 짓기를 배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뉴턴은 그가 기하학의 초보적 원리로부터 그 의 위대하고 심원한 발견에 이르기까지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든 단계를,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 에게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따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호메로스나 빌란트와 같은 시인은 상상이 넘치는 동시에 사상이 풍부한 그의 이념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리에 떠올라 정리되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시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위대한 발견자라 할지라도 고군분투하는 모방자와 단지 정도상의 차이로 구별될 따름이지만, 자연으로부터 미적 예술에 대한 천부의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과는 아예 종적으로 구별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류에게 그토록 많은 도움을 준 저 위대한 학자들, 미적 예술에 대한 재능 덕택에 자연의 총아가 된 사람들보다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학자의 재능은 인식이 끊임없이 진보하여 더욱 완벽해 지도록 하기 위해, 그에 의존하는 온갖 종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 해 형성된 것이다. 그 점에서는 학자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영예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보다 나은 점도 있는 것이다. 학문적 지식과 달리 예술의 기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손으로부터 각 개인에게 직접 부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교는 그 사람과 더불어 사멸하며, 자연이 훗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자질을 부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시문 (다)

어린 모차르트는 그의 경쟁자인 누나를 흉내 내어 건반을 두드리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자기 몫을 얻으려 했을 수 있다. 아버지는 스피넷*의 소리에,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 연주에 놀라우리만치 일찍 관심을 보이는 아들에게, 이전까지는 누나에게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랑과 관심을 규칙적인 음악 수업의 형태로 확장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속도와 범위로 음악적 학습 자료를 습득하면서 그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수고에 보답하자, 자식에 대한 그의 애정은 한층 커졌을 것이다. 아버지의 커진 관심은 좀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아이를 격려한다.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감격시킨 것은 아이의 비상한 이해력이었다. 아버지 자신이 이 능력의 발달에,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어린 모차르트의 특출한 음감과 음 기억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진정 하나의 기적처럼 보였다. 그가 세 살 때부터 시작한 체계적 수업은 이런 인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편찬한 악보에 따라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엄밀한 수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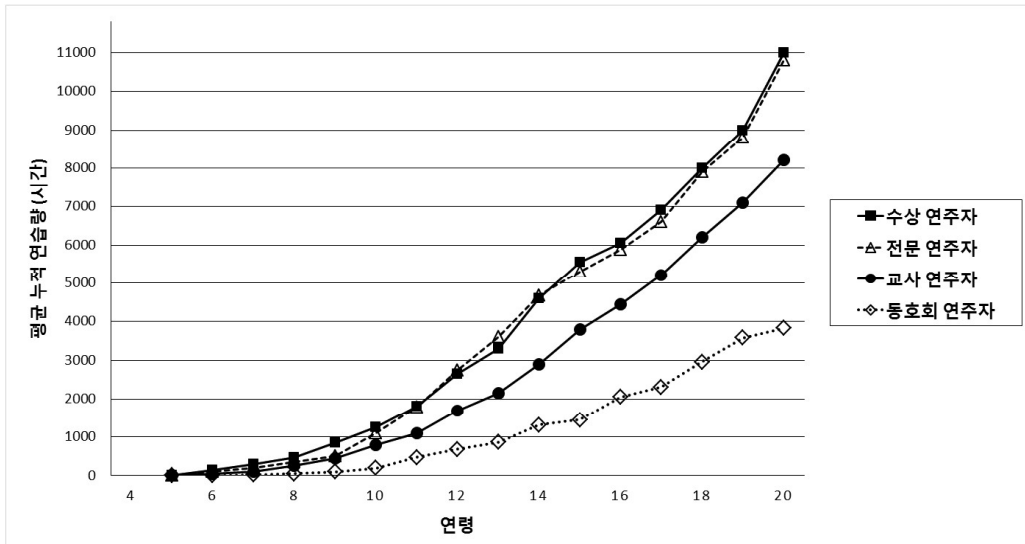
풍요로운 자극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당사자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모차르트는 분명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음악과의 이른 만남과 꾸준한 접촉, 오랜 기간에 걸친 아버지의 열렬한 교육, 신동으로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힘든 노동을 요했던 이력 등이 재정적인 안정, 신분 상승의 기회, 도사리고 있는 몰락의 위험에 대한 가족의 힘겨운 생존 투쟁과 결합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개인적인 발달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일찍 특정한 방향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은 채, 그 후 점점 더 의도적으로 아이의 동기와 환상의 커다란 흐름을 이 한 노선으로, 즉 음악을 다루는 일로 유도했다. 그가 아들에게 행한 심화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음악, 그리고 명연주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었다. 모차르트가 유년기와 그 이후에도 감내해야 했던 음악가로서의 힘든 직업 활동도 그의 발달을 동일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그런 활동이 음악적 전문화의 길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했음은 분명하다. 고된 훈련은 어린 모차르트에게서 일상적 즐거움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렬한 쾌락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다.

* 스피넷: 건반이 달린 현악기의 일종

제시문 (라)

아래 그림은 현역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주당 평균 연습시간을 20세 시점까지 누적시켜 제시하고 있다. 그림은 전체 연주자들을 연주 수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내 평균을 보여준다. 상위 세 집단은 같은 음악 대학을 나온 연주자들이다.

- (1) 수상 연주자: 가장 우수한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단독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연주자들
- (2) 전문 연주자: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교향악단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
- (3) 교사 연주자: 음악 대학 졸업 후 지역 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하며 중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연주자들
- (4) 동호회 연주자: 음악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바이올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취미활동으로 연주를 하는 동호회 소속 연주자들



<문제 1>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1636년 12월 청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굶고 얼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는 가운데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성 안에 넣는다.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끌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돌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가겠습니까. 더구나…….”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戰)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守)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和)가 아니라 항(降)이오.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 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상헌이 말했다.

“화친은 불가하옵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크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和) 자를 먼저 꺼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이백 년 종사*가 신민을 가르쳐서 길렀으니 반드시 의분하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상헌의 답답함이 저러하옵니다.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길을 끊어야 하는 것이겠사옵니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울 터인데, 의(義)를 세운다고 이(利)를 버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 종사: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 창의: 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

제시문 (나)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여길 수 없다. 그럴 경우 평화 조약은 모든 적대 관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니라 휴전이나 전쟁의 연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는 오히려 전쟁의 상태다. 즉 자연 상태에서 항상 적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적대 행위의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화 상태는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적대 행위의 중단은 아직 평화 상태의 보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증이 이웃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웃들이 서로 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구적인 평화 상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 공화제여야 한다. 이 체제의 조건은 첫째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둘째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근거를 둔 의존의 원리에 의해, 셋째로 평등의 원리에 의해 마련된다. 이 체제가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전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필수적인데, 국민은 전쟁이 초래할 재앙을 감수하는 데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나 독재자는 국가의 구성원들보다 손쉽게 전쟁을 선포해 버린다.

자연 상태에서 여러 국가들은 폭력과 전쟁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상호 이익을 통해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자유로운 교역과 상업주의 정신 덕분이다. 국가의 힘에 속하는 모든 수단 가운데 물질적인 부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부의 유지를 위해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는 곳이 어디든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게 된다.

제시문 (다)

평화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모든 사람의 번영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신념이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늘 평화롭게 살았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부자가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있겠는가? 어떠한 이득도 없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자신을 옹호할 사슬 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또는 억압받거나 착취당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길이 곧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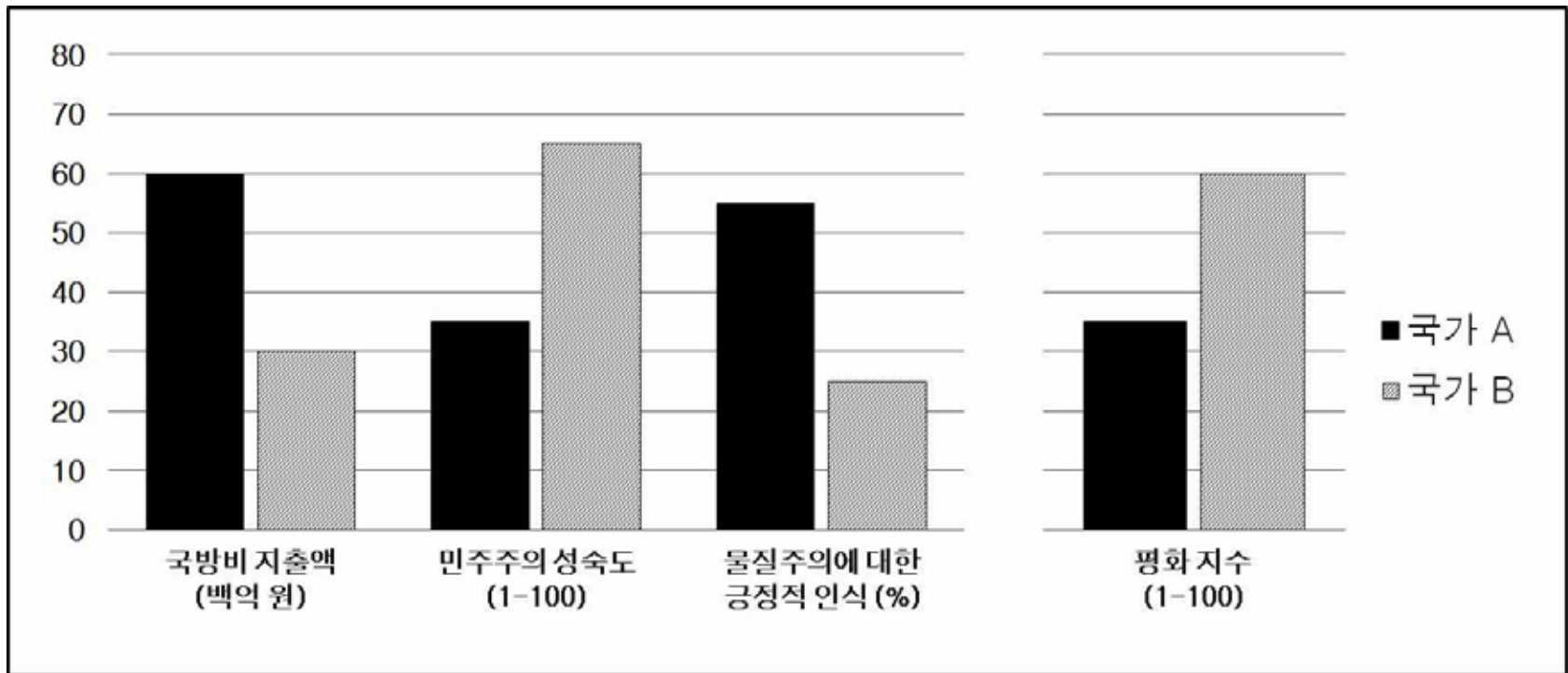
이러한 지배적인 신념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 이에 따르면 풍요로움이라는 희망 사항이 빨리 실현될수록 또 하나의 희망 사항인 평화도 곧이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풍요와 평화의 길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학과 기술이 있기에 굳이 금욕이나 희생이 필요치 않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물질적 자원은 충분히 있는 것일까? 곧바로 더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힌다. '충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충분하다고 말하는가? 경제 성장의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제학자는 '충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 게다가 "좋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풍족한 사회가 있을까? 그러한 사회가 있을 리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평화의 토대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질투심에 의해 달성된 번영은 결국 평화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는 세계의 한정된 자원을 과도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욕망을 줄여야만 다통이나 전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제시문 (라)

아래 그림은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결과인 평화 지수를 보여 준다. 평화 지수는 국내외적인 갈등 요소를 고려하여 한 국가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한 지표다. 국가 A와 국가 B의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제시문을 비교·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 지수가 낮은 이유 또는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 지수가 높은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자신의 얼음 사업을 현대화하고 다른 도시에까지 판매를 확장하기 위해 마콘도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야겠다고 생각한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말했다. “우리는 마콘도로 철도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마콘도 사람들이 ‘철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도 이때였다.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는 달력을 검토하고는 다음 수요일에 마콘도를 떠났다. 두 번째 겨울이 돌아온 어느 날 무시무시한 반향을 일으키며 기적이 울리고 이상한 혈떡임이 온 마을을 진동시켰다. 기적소리를 듣고 온통 길로 쏟아져 나온 마콘도 주민들은 기차 위에서 손을 흔드는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와 처음으로 이 마을에 도착한 온갖 꽃으로 장식된 기차를 뚫고 잃고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 스스로 건설하고 함께 가꾸어 간 평화로운 이 마을에 불안과 안도를, 기쁨과 불행을, 변화와 재난, 그리고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다 줄 무심한 노란 기차를.

이후 너무나도 많은 신기한 발명품들을 맞게 된 마콘도 사람들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밤을 새우며 하얀 전구를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 - 이것은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두 번째의 기차여행 때 가져온 것이었다 - 의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들은 돈 많은 상인 브루노 크레스피가 만든, 사자 입 모양 대표소가 있는 극장에서 틀어 주는 생생한 영화를 보고 나서 모두들 격노했다. 한 영화에서 죽어서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까지 흘려주었던 인물이 다음 영화에서 아랍인으로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2 센타보의 돈을 내고 기꺼이 주인공들의 운명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던 관객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기에 화가 치밀어 극장의 의자를 부숴 버렸다. 브루노 크레스피의 재촉으로 마콘도 시장은 공지문을 내어 영화란 관객이 감정적 소요로 떠들어댈 것이 없는 환각의 조작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그들은 대대적인 사기에 걸려 들었다면서 다시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때는 악사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주점 거리의 축음기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가게로 손님을 더 끌려는 호객꾼들의 의도대로 처음에는 축음기에 대한 호기심에 끌려 그 유흥가로 들어가는 손님의 수가 몇 배나 늘어났고, 그 신기한 물건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막일꾼처럼 변장을 하고 와서 구경하는 양갓집 부녀자도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얻은 결론은 그것이 마법의 맷돌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며 자신들의 삶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악사들의 연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뒤에 축음기가 보급되어 집집마다 한 대씩 가지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뜯어보고 노는 데에나 적당한 장난감 같은 물건이라고 여겼다.

제시문 (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문화의 여러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문화의 여러 부분들도 변화하게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화의 다양한 부분들은 상호 의존적이기에, 한 부문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문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변화의 속도가 문화 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지체가 일어나며, 이러한 지체, 즉 부적응은 가능한 빨리 줄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주장을 좀 더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구성원은 물질문화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물질문화란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인위적으로 발명해낸 물리적인 것들로 주택, 공장, 기계, 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이러한 물질문화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관습, 믿음, 풍속, 의례, 철학, 법체계 등의 비물질문화 부문도 필요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물질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비물질문화도 함께 변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비물질문화의 변화 속도가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지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사회는 이해가 다른 여러 종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한 사회의 특정 집단만 원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연히 지체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를 보상하는 법은 산업 재해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찍 통과될 것이다. 또한 사회가 비물질문화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규범, 전통적 가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관습이나 규범, 가치들은 오랜 기간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온 것으로 습관이나 사회적 압력, 과거에 대한 애착 등의 이유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보다는 연장자들이 더 소중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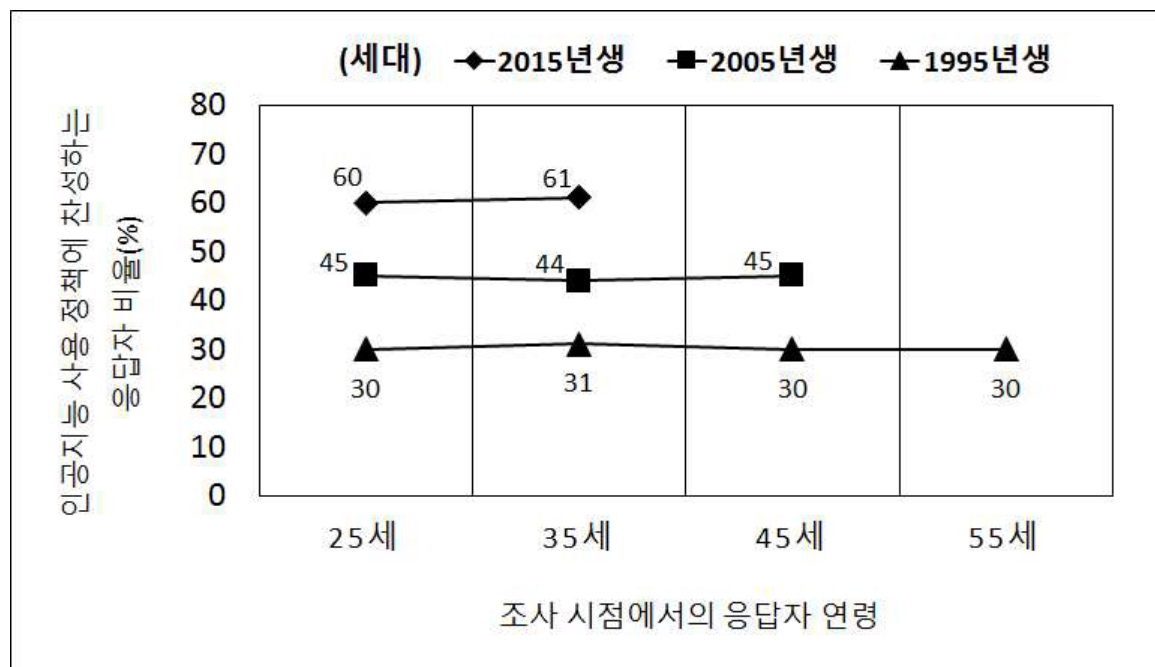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한 살아 있는 문화를 이미 상실해 버렸다. 민요, 민속춤, 의례와 같은 문화유산들은 그 외형적인 모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은 질서 있고 모범적인 삶의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그 속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자연 환경이나 절기의 규칙적인 변화에 공감하고 적응하며 쌓아 온 경험과 사회적인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기계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인간의 삶은 자연의 리듬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파괴라고 해야 할 이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동력은 기술공학이었다. 기계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기존의 삶의 방식을 파괴했다. 기계가 생활을 지배하면서 사회는 항상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너무 빨리,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며 삶의 방식을 이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기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익, 즉 대량 생산은 결국 표준화와 삶의 수준 저하를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속에서 유지되던 생생한 삶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창조적인 문화유산은 잊혀지며, 인간의 능동적 대응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류의 유산은 상실되고 문화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현대 기계문명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선의나 가치의 기준을 단순화하고 축소시킨다. 창조적인 지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항하여 공동체의 문화를 지켜 왔다. 과거에 있었던 최선의 인간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문화전통을 유지해 왔다. 한 시대를 살아가며 필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몫이다. 따라서 대안은 교육이다. 공동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만 양질의 교육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교육은 양질의 삶을 길러낸다.

제시문 (라)

국가 A에서 2020년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같은 전문직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하였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은 도입 이후 이 정책에 대한 30년 동안의 찬성률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2015년생 응답자는 25세가 되던 해에는 60%가, 35세가 되던 해에는 61%가 이 정책에 찬성하였다. (* 해당 정책 실시 이후 국가 A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문제 1>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문화’와 ‘문화변동’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각 관점에 근거해서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마콘도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국가 A의 인공지능 사용 정책에 대한 찬성률 추이와 그 원인을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 집 단 위		수 험 번 번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유럽에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은 믿음의 발전과정이다. 믿음은 시장의 탄생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믿음은 모든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대규모 상업 거래의 토대가 되었다. 유럽에서 경제 행위가 시작되던 시기에, 곧 상인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거나 유럽의 큰 강줄기를 따라 형성되었던 장터에서 서로 만나곤 했을 당시에는, 아직 사법 체계와 재판 절차, 제재 규정이 취약했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곳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복잡하고 위험하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거래에서는 진정 상대편을 신뢰해야 했다. 상대편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제대로 상품을 보낼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야말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주는 중요한 보증이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상대편도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대편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기에, 나도 상대편을 신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뢰로 인해 유럽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교역은 새로운 형태의 우애가 되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 상품의 양이 늘어났고 상업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만남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믿음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 시장과 부를 낳았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산이었다. 예컨대 화폐, 담보, 은행이 존재했다라도 니콜로라는 사람이 미구엘이라는 사람을 신뢰했고 그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 덕분에 거래가 성사되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내재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 이런 믿음이 파괴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점차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 의해 구현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냈다. 유럽은 이런 새로운 믿음에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에 의해 재건되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이전의 믿음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이 경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점차 확대되어 성장률을 낮추고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부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신뢰라는 인간관계와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무관한 금융 제도를 구축했던 데에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는 은행이라면 곤경에 처한 건실한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인간적인 신뢰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만남도 없이 그저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온 대출심사 결과 수치에만 의존하며, 이로써 비인간적인 방식이 되고 만다.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 만나야 하고, 사람들을 신뢰해야 하며 그들의 취약성까지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와 금융 거래에서 상대편의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같은 거래는 비인간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차원에서 믿음을 다시 찾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묘책이나 통치 체제도 진정 우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시문 (나)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성장이란 단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대 경제는 마치 호르몬이 넘쳐나는 십대처럼 성장해왔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제는 대체로 같은 규모를 유지해왔다. 물론 지구 총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은 대체로 인구 팽창과 정착지의 확대 덕분이었다. 1인당 생산은 정체 상태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대에 와서 바뀌었다. 서기 1500년 재화와 용역의 지구 총생산은 약 2,050억 달러였는데, 오늘날 이 수치는 60조 달러까지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기 1500년 연간 1인당 총생산은 550달러였지만 오늘날 모든 남녀와 어린이가 1인당 연평균 8,800달러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왕자, 성직자, 농부 모두 인간의 생산은 일정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손자들도 더 나은 생활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경제적 정체성의 큰 원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유는 근대 이전에는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러 은행-그리고 경제 전체-을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대표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이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제한된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 한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상상 속의 재화를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으로 대체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신용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 현재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에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 근대 이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제시문 (다)

남산 밑 묵적골(墨積洞)에 살며 책 읽기만 즐겨하던 가난한 선비인 허생은, 어느 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간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대하여 길게 읊**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 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굴, 유자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쏟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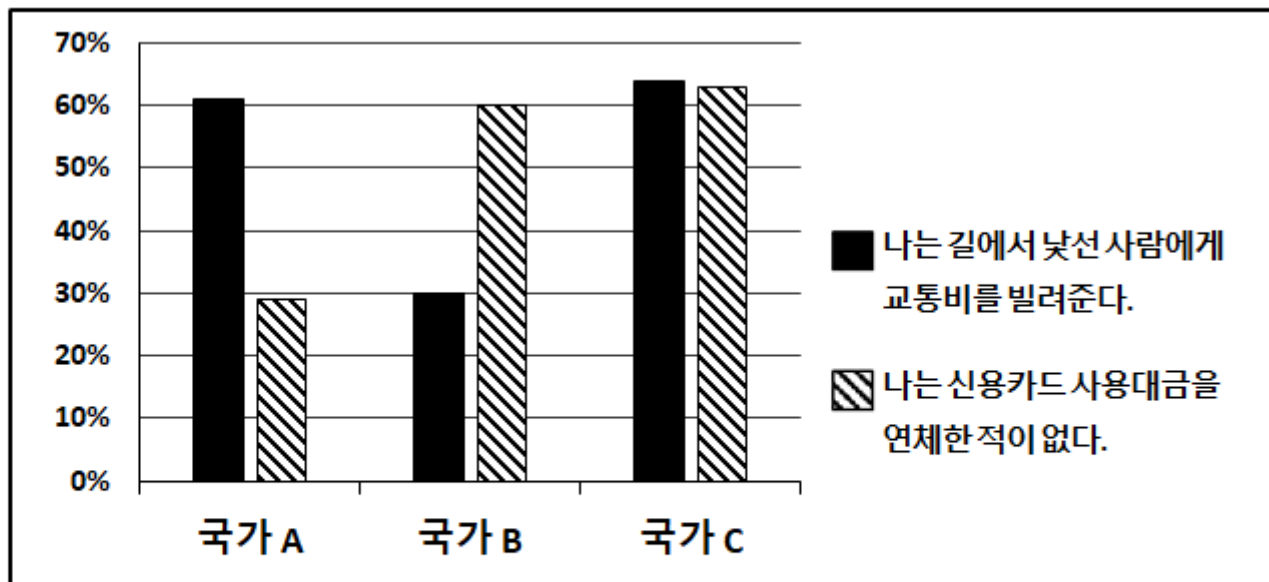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운종가: 조선 시대에, 서울의 거리 가운데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

**읍: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제시문 (라)

아래 그래프는 가상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정도와 ‘신용’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다. 또한, 아래 표는 각 국가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 각 국가들의 ‘신뢰’의 정도, ‘신용’의 정도, 연간 경제 성장률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국가 A	국가 B	국가 C
연간 경제 성장률(%)	3.0	2.5	3.8

<문제 1>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분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의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에 나타난 현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부딪힌 상태로 정체하면 장마가 시작된다. 즉 '두 기단의 충돌 및 정체'와 '장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과 관계를 밝히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과 관계를 밝히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과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입증하는 방식은 실험이다.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변수 이외의 요인에 의한 설명은 제거되어야 하는데, 실험은 이를 가장 분명하게 제거해 준다. 실험은 모든 면에서 유사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을 나누고 특정 집단에만 어떤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후 집단 간에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관찰한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대부분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역사적, 문화적 조건의 지배를 받으며 동기나 가치 등 사람들의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간의 내적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입장이 되어 현상을 이해하려는 감정 이입적 설명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감정 이입적 설명 방식은 인간 행위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일기, 대화록, 관찰 일지, 면접 기록 등의 자료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연구가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정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인과적 설명 방식과 감정 이입적 설명 방식 중 어느 한 가지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는 이 두 설명 방식의 장점을 살려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한 가지 설명 방식을 견지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설명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 기단: 수백km²에 걸쳐 형성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제시문 (나)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평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은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동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투표에 참여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사회적 압력이다. 만족감과 사회적 압력이 각각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120,000가구의 M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독려 엽서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지역에서 개인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공개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만족감과 사회적 압력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A, B, C 세 집단을 40,000가구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세 집단에 속한 유권자의 연령, 가족 수, 이전 선거 투표 여부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A 집단에는 엽서를 보내지 않았고, B 집단과 C 집단에는 투표 독려 문구를 담은 엽서를 발송했다. B 집단에 보낸 엽서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C 집단에는 "선거 후, 누가 투표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았는지 공개하는 엽서를 지역 주민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안했는지 당신과 이웃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 즉 사회적 압력의 메시지가 들어간 엽서를 보냈다.

선거가 끝난 후 A, B, C 세 집단의 투표율은 각각 29%, 31%, 38%로 조사되었다. C집단의 투표율이 A, B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이웃의 투표 여부가 공개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시문 (다)

1977년 4월 20일 광주 무등산 덕산골에서 박흥숙이라는 청년이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국가 주도의 폭력적인 도시 개발과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던 빈민들의 현실이 빚어낸 것이지만, 당시 언론에는 대부분 폭력적인 강제 철거의 현실을 은폐하고 박흥숙과 가족들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기사들만 실렸다. 사건의 진상은 한 대학생이 사건 현장을 찾아가 가족과 이웃을 직접 만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시골에 살던 박흥숙의 가족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로 나왔다. 이렇게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빈민들은 무허가 판잣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았다. 그러나 박흥숙의 가족은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 흠어져 살아야 했다. 어머니, 여동생, 외할머니가 각각 식모살이를 해야 했고, 박흥숙도 공장에서 일했다. 그의 소원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이었고, 1974년 혼자 덕산골에 집을 지었다. 비록 움막과 다를 바 없었지만, 가족들이 모여 살 이 집을 어머니에게 바쳤다. 박흥숙은 검정고시에도 합격했고, 사법시험 공부를 했다. 법관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7년 전국체전을 앞둔 광주시는 무등산 일대의 판잣집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박흥숙에게도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날아왔지만, 차마 자기 손으로 집을 부술 수 없었다.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치자, 박흥숙과 가족들은 순순히 철거에 응했다. 그런데 철거반원들은 다시 건물을 짓지 못하게 불을 질러 버렸다. 모은 돈을 집 천장 위에 넣어 두었던 박흥숙의 어머니는 집으로 달려갔으나 떠밀려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철거반원들이 근처에 살던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의 집까지 불태우자, 박흥숙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철거반원들을 위협해 빨랫줄로 묶었다. 이들을 끌고 광주시청으로 가서 시장과 담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철거반원들이 저항하자 흥분한 박흥숙은 쇠망치를 휘둘렀다. 4명이 죽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박흥숙은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서 깊이 참회했다. “나의 죄는 백번 죽어도 사죄할 길이 없다. 나 같은 기형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떤 극형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항변했다.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불까지 질러, 돈이나 봄에 뿌릴 씨앗까지 깡그리 타고 말았다.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죄 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각계의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박흥숙은 1980년 12월 24일 사형을 당했다.

박흥숙 사건은 1년 뒤에 출간된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재개발에 밀려난 난쟁이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한다. 30년 전 소설 속에서 집을 잃고 밀려난 빈민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어 있을까? 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철거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제시문 (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수준도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선천적인 재능이 대물림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더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때문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국의 학자들은 입양되어 자란 21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생후 3개월 이전에 입양되었으며, 영국의 입양 정책에 따라 입양 당시 친부모에 대한 정보,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의 특성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입양되었다. 따라서 입양한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입양된 아기의 선천적 재능과 관련성이 없다.

입양아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친부모 밑에서 자란 같은 수의 비교 집단을 선정하였다. 두 집단은 나이, 성별, 인종, 7세 시절의 읽기 능력 평가 점수 등에서 비슷했다. 그리고 비교 집단의 친부모들은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등에서 입양아 집단의 입양 부모들과 비슷했다. 이처럼 두 집단은 자녀와 부모 모두 유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입양아 집단이 16세 때 치른 국가 학력 시험 성적과 입양 부모의 교육 수준을 조사한 결과 둘 사이에는 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 비교 집단의 아이들은 친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16세 때 시험 성적이 좋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일부 아이들의 재학 시절 3년간 심층 면접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입양아 집단보다 비교 집단의 아이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각각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석하고, 각 제시문에 드러난 설명 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의 주장을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밑줄 친 부분에 답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집 단위		수 험 번 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생명유지, 영양섭취, 감각적 지각 등과 같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성의 발휘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 덕을 쌓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은 이성을 통해 어떤 행동이 좋은가를 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이를 실천에 옮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하지만 한 번의 실천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덕한 행위가 습관화될 때 덕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덕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과도함과 부족함은 악덕의 특징이요, 양 극단 사이에서 적절함을 선택하는 중용이야말로 덕이 갖는 특징이다. 이 때의 적절함이란 1과 5 사이의 중간이 3인 것처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중용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은 중용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린 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성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자제력 없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이란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것처럼,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해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데 반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해야 할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이성 때문에 그 욕구를 따르지 않지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것을 한다.

자제력 없음은 악덕에 속하는 무절제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둘 다 육체적인 욕구와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 그것도 쾌락 자체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며 또 후회할 줄도 모른다. 후회할 줄 모르는 자를 고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확고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정도로 감정에 지배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쾌락을 무한정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까지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기가 쉽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무절제한 사람과 달리 자제력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성과 더불어 중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제시문 (나)

<실험 1>

한 심리학자가 '행복한 쥐 공원'이라는 실험을 했다. 16마리의 쥐들은 실험실에 있는 각각 격리된 작은 우리 속에 가두고, 다른 16마리의 쥐들은 '행복한 쥐 공원'이라고 하는 거주지에 넣어 두었다. 공원의 넓이는 18제곱미터가 넘었고, 온도는 쾌적했으며, 공원 내부에는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쥐들은 공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우리 속의 쥐들과 쥐 공원의 쥐들에게 동일하게 중독물질인 모르핀을 탄 물과 일반적인 물을 선택하게 하자, 우리 속의 쥐들은 초기부터 모르핀을 탄 물을 마시며 중독되었지만, 쥐 공원에 있던 쥐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물을 선택했다. 또 이미 실험실에서 모르핀에 중독된 쥐들도 쥐 공원으로 옮겨주자, 금단증상을 겪으면서도 모르핀이 든 물을 선택하지 않았다.

<실험 2>

영상 의학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 연구진은 중독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약물에 중독된 50명과 그들의 형제자매 중 전혀 약물에 중독된 경험이 없는 50명을 선정했다. 중독자와 중독되지 않은 그들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50쌍이 실험에 참여한 것이다. 또 비교를 위해 약물에 중독된 경험이 없는 일반인 50명도 실험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의 자기 조절 능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겼다. 일반인 50명과 비교해 중독자들은 당연히 점수가 낮았지만, 그들의 형제자매들도 대부분 이 평가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 영상 촬영 결과에서도 중독자와 그들의 형제자매는 모두 자기 조절, 쾌락과 보상, 습관 형성 등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에서 일반인 50명과 매우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약물 중독자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요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시문 (다)

우리는 과잉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게 되었다. 포장된 쾌락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량생산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감각을 제공하는 식품과 기호품이 병, 캔, 상자에 담겨 포장되었고, 소리와 경치, 환상까지도 포장되었다. 인간이 전통적으로 경험해온 청각, 시각, 미각, 그리고 더 나아가 동작과 환각까지 끌어 모으고 압축하고 저장해서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포장된 쾌락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새로운 발명을 통해 기존의 감각을 조합하고 변형시켜 새로운 감각을 만들었다.

쾌락 제조자들은 질리고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각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다. 이것은 업계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도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강렬함은 더 큰 강렬함을 낳았다. 삶의 지루한 부분을 견뎌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포장된 쾌락은 전례 없는 건강상의 위험과 도덕적인 위기도 야기했다. 극단적인 사례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성분이 강화되면서 중독의 문제를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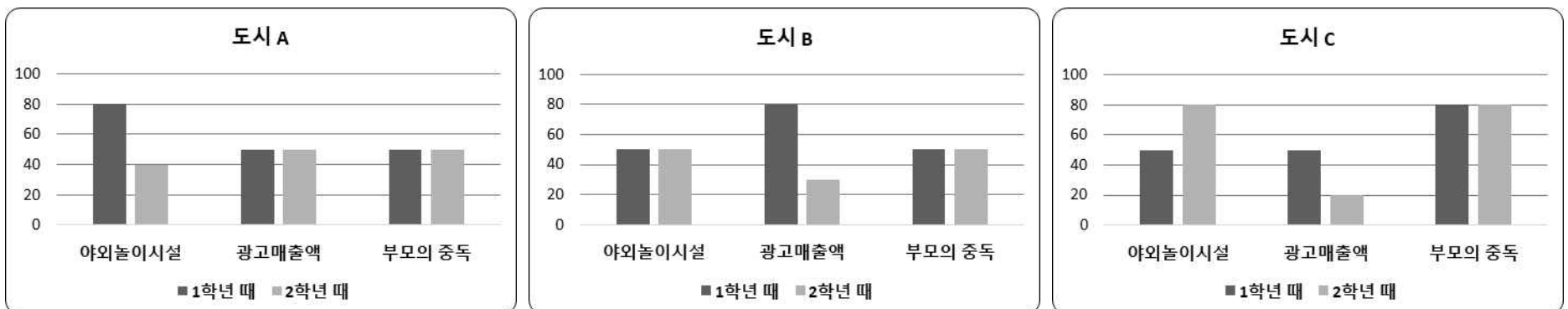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공물인 담배는, 20세기 들어와 생산이 기계화되고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량 판매되면서 중독적인 과잉 소비로 이어졌다. 담배 중독이 늘어난 데에는, 제조업체가 정교하게 첨가하는 화학 물질만이 아니라 마케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조업체는 담뱃갑에 그려진 디자인과 문구를 다양하게 만들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광고회사는 이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욕망의 만족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추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과도한 욕망의 문제가 중용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중용만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수준으로 치환해버리게 된다.

제시문 (라)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야외놀이시설 보급 정도, 광고매출액, 해당 학생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했다.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과 2학년 때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각 요인들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측정값은 0에서 100 사이로 조정했고, 전국 평균값은 두 차례 모두 50이었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도시 A>, <도시 B>, <도시 C>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표와 그래프의 모든 수치는 조정된 측정값의 평균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중독은 세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			
	도시 A	도시 B	도시 C	전국
1학년 때	30	80	80	50
2학년 때	80	20	80	50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나),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에 관한 다음 물음들에 답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1: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1학년 때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시문 (나), (다)에 나타난 관점들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문제 2-2: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어떠한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지 서술하시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갖는 명예는 각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정(不正)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삼는다. 이와 같은 명예는 지위와 계급을 떠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명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명예는 누구에게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한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고, 명예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쓰디쓴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를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는 외면적인 양심이며, 양심은 내면적인 명예”라는 정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료하고 본질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사실상 명예는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우리 가치에 대해 타인이 갖는 견해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 민감한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중요시하게 된다. 타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확신만큼 그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없다. 이런 호평은 모든 사람이 그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며, 인생의 여러 재앙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명예는 손상되기 쉬운 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지속되는 반면 획득하기가 어렵다. 명성은 비범한 공적(功績)*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적에는 선행(善行)에 의한 공적과 작품에 의한 공적이 있다. 선행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데 반해 작품은 영속적으로 남는다. 선행에서 남는 것은 선행에 대한 추억뿐이어서, 기록으로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작품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살아 있다. 또한 선행의 명성은 선행의 내적 가치만이 아니라 선행이 이루어진 조건과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소수 목격자의 진술에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선행은 일반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작품은 주위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고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만 좌우되며, 그것이 존속하는 한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때로 그것을 판단할 유능하고 공정한 평가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공적(功績): 훌륭한 성과로 평가받은 업적.

제시문 (나)

요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단지 순간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사적인 관심사에만 전념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19세기의 신실한 시민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천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그들은 행운과 악운을 침착하게 견디며 자신이 맡은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직분의 수행을 통해 자기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직분은 개인에게 부과된 일종의 소명이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공명보다는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들이 이룬 것에 견주어서가 아니라 근면, 절제, 헌신, 봉사와 같은 추상적인 이상에 견주어 판단했다. 전통적인 규범을 통해 규정된 이러한 이상은 개인에게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세기 말엽부터 개인의 성공에 주목하는 경향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 또한 가치의 실현이나 성취의 내용보다는 업적이 가져다주는 외적 보상에 집중되었다. 가치 실현이 가져다주는 명예보다는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치중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들어 성공은 경쟁자들에 대한 승리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목적이 되었다. 성공 관련 실용서들은 타인을 이용하고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성공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직분의 명예로운 수행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이미지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적의 내용 자체보다는 업적이 누구의 공으로 돌려지는가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성공의 꿈이 성공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자신의 업적을 비교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성취를 측정할 어떠한 기준도 갖지 못한다. 과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쓸모있다고 인식하게 해 주었던 친구와 이웃의 호평이, 이제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외적 평가와 결부될 때에만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기과시로 변모하면서, 자기과시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성공을 부와 명성, 그리고 권력으로 정의하는 반면, 업적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강조될 뿐 무엇을 행했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명예는 자기 직분에 맞는 고귀한 행위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명성은 신문·잡지의 뉴스나 인물란, 연예란 등에서 갈채를 받는 개성의 표출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명성은 새롭지 않으면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는 뉴스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성공이 주로 젊음, 매력, 새로움의 함수가 된 시대에 영광은 어느 때보다 더욱 빨리 지나간다. 대중의 주목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걱정한다. 이런 사회에서 성공은 공표 과정을 통해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시문 (다)

● 아래 글은 소설의 한 대목으로,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여 이웃 민씨가 지은 비문(碑文)*이다. (출제 의도에 따라 소설의 원문을 일부 수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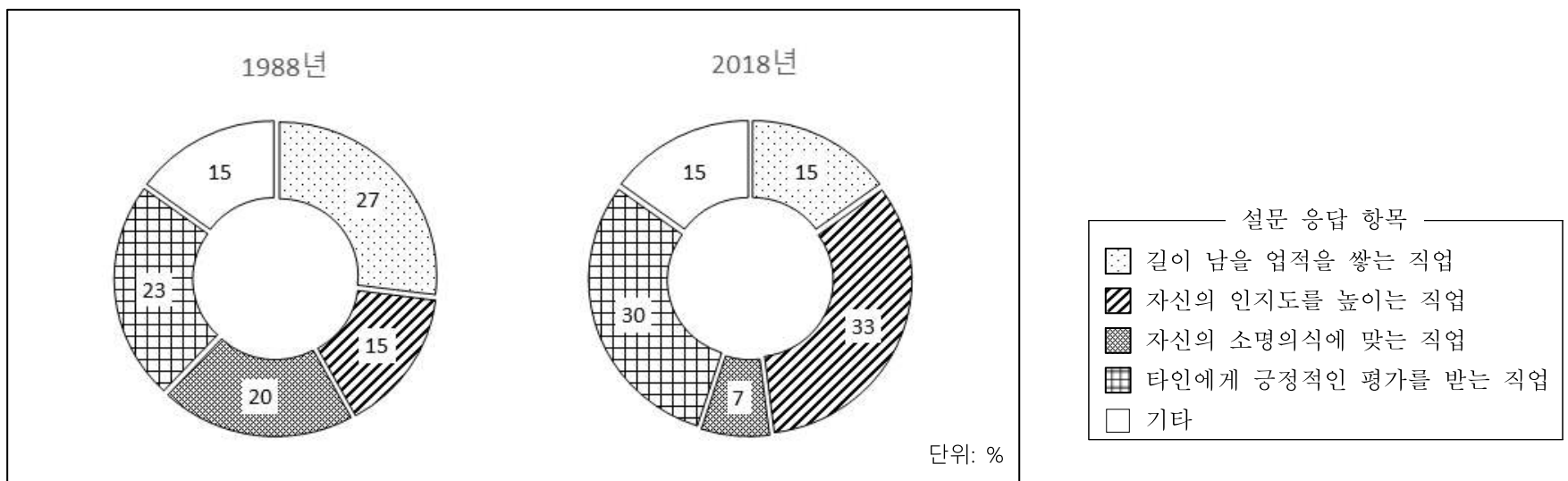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황선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는 부를 이루지도 못했고 남들의 대단한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 선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그를 업신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토끼 귀신을 믿는 그를 두고 모자란 사람이라 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 가운데 선생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아무도 하지 않는 마을의 험한 일을 언제나 도맡았고, 종종 품삯도 없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곤 하였다. 그를 바보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농사를 잘 짓는 으뜸 농사꾼이었고, 경운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박사'였다. 자기 뜻대로 농사를 지으며 백 년을 살겠다던 그는 천상 농민이었다. 농가 부채 해결을 요구하는 농민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여럿이었지만, 농민답게 경운기를 몰고 집회에 나서자던 약속을 지킨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늦게 도착한 탓에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돌아오던 길에 고장 난 경운기 결을 지키다 차가운 빗속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

- * 비문(碑文): 죽은 이를 추모하여 비석에 새긴 글.
- ** 신지(神智):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제시문 (라)

아래 그래프는 1988년과 2018년에 도시A의 시민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시민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 표시된 '설문 응답 항목' 가운데 하나만을 골랐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다. 두 글을 비교·분석하고, 각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황만근의 삶을 논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명예'와 '명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그래프에서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인문·사회계열)

제시문 <가>

소크라테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이집트 나우크라티스 지방에 테우트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숫자와 계산법, 기하학, 천문학은 물론이고, 장기와 주사위 놀이, 게다가 문자까지 발명했다고 하네. 어느 날 테우트는 이집트의 왕인 타무스를 찾아가 자신이 만든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기술들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네. 왕은 그 기술 하나하나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물었고, 테우트는 상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대화가 문자에 이르자, 테우트가 이렇게 말했네. “왕이여, 이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러자 타무스가 이렇게 대답했네. “기술이 뛰어난 테우트여.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에 대해 선의를 품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아,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 있는 흔적에 의존할 뿐 스스로 기억해 내려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상기의 묘약이고, 그대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겉모양이지 참모습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대 덕분에 많은 것을 듣게 되고,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들은 무지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겉보기에 지혜로운 자일뿐이요. 그러니 기술을 문자에 담아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문자로부터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함이 생겨나리라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세. 그는 글로 쓰인 말들이 이미 앎을 가진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파이드로스: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글쓰기에는 뭔가 이런 기이한 점이 있으니, 사실 그것은 그림 그리기와 똑같네. 그려진 것들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보이지만, 자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무겁게 침묵한다네. 글도 똑같다네.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의 같은 것만을 가리키지. 일단 글로 쓰이고 나면, 모든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변과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똑같이 맴돌면서, 말을 걸어야 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네. 참된 인식과 함께, 배우는 자의 영혼 속에 쓰인 말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고, 상대해서 말을 해야 할 사람들과 침묵해야 할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안다네.

파이드로스: 당신은 앎이 있는 자의 말을 일컬어 살아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글로 쓰인 말은 그것의 영상(映像)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제시문 <나>

By contrast with natural, oral speech, writing is completely artificial. There is no way to write ‘naturally.’ Oral speech is fully natural to human beings in the sense that every human being in every culture who is not physiologically* or psychologically disabled learns to talk. To say writing is artificial is not to condemn it but to praise it. Like other artificial creations and indeed more than any other, it is truly invaluable and indeed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fuller, interior, human potentials. Technologies are not mere exterior aids but also interior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and never more than when they affect the word. Writing

heightens consciousness and it also provides for consciousness as nothing else does. Oral cultures indeed produce powerful and beautiful verbal performances of high artistic and human worth. Nevertheless, without writing, human consciousness cannot achieve its fuller potentials, cannot produce other beautiful and powerful creations. In this sense, orality needs to produce and is destined to produce writing. Literacy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not only of science but also of history, philosophy, explanatory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of any art, and indeed for the explanation of language (including oral speech) itself. There is hardly an oral culture left in the world today that is not somehow aware of the vast complex of powers forever inaccessible without literacy.

Technologies are artificial, but — paradox again — artificiality is natural to human beings. Technology, properly interiorized, does not degrade human life but on the contrary enhances it. The use of a technology can enrich the human mind, enlarge the human spirit, and intensify its interior life. Writing is an even more deeply interiorized technology than instrumental musical performance is. With telephone, radio, television, and various kinds of digital media, electronic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by contrast with primary orality, which refers to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totally untouched by any knowledge developed through writing or print. But secondary orality is essentially a more deliberate and self-conscious orality, based permanently on the use of writing and print. Secondary orality is both remarkably like and remarkably unlike primary orality. Like primary orality, secondary orality has generated a strong group sense, for listening to spoken words forms hearers into a group, a true audience, just as reading written or printed texts turns individuals in on themselves. But secondary orality generates a sense for groups immeasurably larger than those of primary oral culture as is indicated by McLuhan's 'global village.' Moreover, before writing, oral folk were group-minded because no possible alternative had presented itself. In our age of secondary orality, we are group-minded self-consciously and programmatically. The contrast between oratory in the past and in today's world well highlights the contrast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orality. Radio, television, and social media have brought major political figures as public speakers to a larger public than was ever possible before modern electronic developments. Thus in a sense orality has come into its own more than ever before. But it is not the old orality. The old style oratory** coming from primary orality is gone forever.

* physiologically: an adverbial form of physiology, meaning a branch of biology that deals with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life or of living matter (such as organs, tissues, or cells) and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henomena involved

** oratory: the art of speaking in public eloquently or effectively

제시문 <다>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감옥 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을까? 감옥은 반체제 인사들의 또 다른 대학이었으며,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항거의 실험실은 독재 체제 아래의 강제수용소와 포로수용소였다. 1840년부터 1930년까지 유럽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디에서나 쫓기는 신세였던 예전의 사회주의는 국경을 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럽 문화가 낳은 고유한 산물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유럽 대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서신 교환이 촉진되었고, 따라서 지식인들의 창조성이 꽃필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서로 더 가까이 있었다. 확실히 사회주의적 글쓰기는 서간문학에 빛을 지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론적 작업의 절반을 편지로 수행했으며, 사실상 그들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우체통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교적으로 변해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다. 대화는 늘어났는데, 논쟁은 줄어든 것이다. 전화는 서신의 기술을 파괴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지니고 있었던 권위는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복잡한 원리와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수다를 떨기 위해 전화를 사용한다. 사소한 말들의 홍수 속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거창한 논의는 이제 개인의 내밀한 장신구 비슷한 것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봐야만 하고, 따라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자면 ‘자발적인 자택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집은 곧 그의 성이다”라는 속담 아래 깔린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일방적인 말을 전달할 따름이다. 또 휴대전화는 끝없는 일대일 관계일 뿐이며, 우리의 머리에서 보편적인 것을 몰아낸다. 전자우편(e-mail)이 서신 교환의 장점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우편’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편지보다 대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간단한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는다든 특성 때문에 전자우편은 글이라기보다는 말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짧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며 대개 감정적이다. 이러한 구술적 성격의 글쓰기에는 일관된 논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전자우편은 사람들이 함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를 정립해나가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인터넷 역시 세계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 간 연대의 유기적인 성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과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세계화하면서도 오히려 특수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라>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과 관련된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는 이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별 디지털 매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디지털 매체 사용량은 전자우편(e-mail)과 협업 소셜미디어(collaborative social media)* 중 하나를 매일 이용하는 도시민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의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도시 거주자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그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0점이다. 이 연구 결과, 조사된 도시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 때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 하락하였고, 이 감소량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단, 거주자가 5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정규분포의 표준편차는 5점이었으며, 아시아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서울시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 증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을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서울 시민들의 전자우편과 협업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1년 후에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협업 소셜미디어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iN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P(|Z| \leq 0.50) = 0.383, P(|Z| \leq 1.00) = 0.6826, P(|Z| \leq 1.65) = 0.90, P(|Z| \leq 1.96) = 0.95$$

$$P(|Z| \leq 2.00) = 0.9544, P(|Z| \leq 2.58) = 0.99, P(|Z| \leq 3) = 0.998$$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십시오.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십시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뉴욕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미국 TV 드라마가 한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라마 내용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에게 정숙함과 자기희생을 기대하는 대만의 문화적 전통은 그 당시 여성 경제력 증가와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에 영감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드러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교훈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2. 제시문 <라>를 근거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200자 내외, 50점)

2-(1)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십시오.

2-(2)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표 2], [표 3] 각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십시오.

(표 안의 숫자는 해당 도시의 수를 의미한다.)

[표 1]

이메일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32 (54.1%)	367 (45.9%)	799 (100%)
적다	482 (63.3%)	279 (36.7%)	761 (100%)

[표 2]

독서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28 (49.7%)	434 (50.3%)	862 (100%)
적다	486 (69.6%)	212 (30.4%)	698 (100%)

[표 3]

협업 미디어*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341 (51.0%)	327 (49.0%)	668 (100%)
적다	573 (64.2%)	319 (35.8%)	892 (100%)

* 협업 미디어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한 협업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